

# “AI·모빌리티·반도체 삼각축…부강한 광주 도약”

## 강기정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병오년 새해 시정의 핵심 키워드로 ‘부강한 광주’를 제시했다. 경제적 풍요인 ‘부’(富)와 광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강’(強)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는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고, 부강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에서 있다”며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과 미래차, 반도체를 지역 경제를 이끌 3대 성장 동력으로, 미래와 관련된 산업, 실증,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실현되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헬스, 바이오, 자동차, AI 등 미래와 관련된 것들이 광주에서 실증되고 실현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으로부터 새해 광주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본다.

-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소회는.

△ 지난해는 광주가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바꿔낸 시간이었다.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지역체 중 가장 유일하게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응을 잘했다. 그리고 대선에서 투표를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민주

정부 탄생에 광주의 역할이 커다는 생각

이 든다.

폭염·폭우나 AI·컴퓨팅센터 유치 불발 등으로 위기가 왔을 때도 NPU 기반 컴퓨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

꿔낸 것은 광주의 힘이다.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기회로 바꾸는 것은 구성원의 열정과 리더십이다.

18년간 풀지 못한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의 실마리를 끝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광주의 열정이다. 민주주의로 다시 광주가 화려하게 등장한 1년이었고, 앞으로 AI, 모빌리티, 반도체까지 부강한 광주 원년을 삼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 새해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 부강한 광주 만들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AI, 모빌리티, 반도체 삼각 축으로 이어지는 미래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81만8347㎡(248만평)의 군공항 부지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전화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계획까지 포함하는 미래 지도를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 AI집적단지인 첨단산단, 모빌리티 집적단지인 빛그린 산단과 미래차 산단을 포함해서 광주를 규제 프리 실증 도시로 선언하고, 미래와 관련된 산

업, 실증,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실현되는 기틀을 만들겠다.

- AI·미래차·반도체 삼각축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 먼저 1조원 규모의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

가 AI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약을 위해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1조원 규모의 국가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는 고도화시킬 것이다.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벤치 사업도 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조5000억원 규모의 AI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조성사업도 빈틈없이 기획하고 착수할 것이다.

국비 617억원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200대가 광주 곳곳을 누비는 자율 주행 실증사업도 추진되고

미래차산단과 빛그린산단 등을 중심으로 미래차의 핵심 부품을 인증하고 개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 광주시가 확보한 정부예산 중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 5·18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지’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에 대한 보존·활용 사업이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점이 매우 뜻깊다.

5·18민주화운동 대표 사적지인 옛 망월 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국민적 추모

와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 7억1300만원과 또 옛 광주 적십자병원의 역사적 공간 보존과 미래세대관 조성을 위한 예산 4억4500만원이 반영됐다.

-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계획은.

△ 1단계는 계획대로 잘 완공해서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대로만 하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다.

토목 공사가 제일 어려웠는데 토목 공사

예산이 이미 확보된 6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과 2조5000억원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AI 산업의 실증과 혁신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미래차 국가산단과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핵심 부품 인증·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여기에 반도체 첨단팹카징 실증센터 구축에도 착수한다.

다시 말해 첨단의 AI 집적단지는 인프라 중심의 실증 단지라면, 미래차 산단도 미래 자율차 모빌리티의 실증 단지다. 이 실증된 것이 실현되는 도시 모형. 그래서 규제가 하나도 없는 실증 정도를 넘어서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 올해 정부 예산 확보는 어느 수준인지.

△ 올해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인 3조 949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정부 예산 3조3858억원보다 16.6%인 5639억원 증가한 규모로 앞서 말한 ‘부강한 광주’ 도

시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 운전을 잘하면 되니까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2단계 공사가 시작됐는데 2단계는 1단계의 교훈을 얻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

일부 공구는 터널식 굴착식으로 공사하니까 상대적으로 교통 문제가 덜할 것이다. 공사가 주로 이어지는 광산 지역은 도로가 넓어서 상대적으로 공사가 편찮을 것 같다.

- 이른바 복합쇼핑몰 3종 세트도 진행 중이다. 향후 계획은.

△ 복합쇼핑몰 조성은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과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의 ‘소비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현대백화점의 ‘현대 광주’가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마쳤고, 광주신세계의 ‘광천타밀 복합화사’와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가 실시한 복합쇼핑몰 상권영향 평가 연구용역 결과, 최대 1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상권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는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고, 부강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에서 있다”며 새해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 2026년 선거 공백이 예상되는데 시정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연속성인데 제

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단

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점을 최소화하

기 위해 시스템 행정을 해줘야 한다.

시장과 부시장, 기조실장, 실·국장 등과

의 관계를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스템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시민들에게는 행정을 믿어주시라 이

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물론 행정이 신뢰

받으려면 행정이 투명해야 한다.

시민들께서 공직자들을 신뢰해주시면

공직자들이 일을 더 잘할 것이다.

민생이 어려워 미안하고, 그런 민생에

대한 어려움, 불안함, 위기감을 다 해소하

지 못해서 아쉽고 미안하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광주가 기

회를 얻었다. 민주주의로 첫 번째 등장한

광주가 이제 두 번째 화려한 등장을 위해

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고 부

강한 광주로 나가겠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950 1970 1990 2020

수십년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준

## “K컬처의 중심, K뮤직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KOMCA의 역할입니다”

음악인을 지킵니다, 음악을 지킵니다

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4대 회장 추가열